

내용 : 『노동리뷰』 4월호 - 특집

담당자	이시균 책임연구원 강승복 연구원
전화	02)782-0141(교환 330)

■ “2005년 임금동향과 2006년 임금전망”

(이시균 책임연구원, 강승복 연구원)

- 국민경제생산성에 따른 2006년 적정임금인상률은 6.2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$$\begin{aligned}
 \text{적정임금인상률} &= \text{실질경제성장률(한국은행 5.0\%)} \\
 &+ \text{소비자물가상승률(한국은행 3.0\%)} \\
 &- \text{취업자증가율(한국노동연구원 1.8\%)} \\
 &= 6.2\%
 \end{aligned}$$

- 2005년의 임금상승률은 6%대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

- 2005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6.6% 상승했는데, 이는 2004년의 상승률(6.0%)에 비해 0.6%포인트 상승한 수치임.
- 내수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도소매업 등의 산업에서 큰 폭의 임금상승률 기록하였으며, 5~9인 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.

-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2006년 적정 임금인상률은 6.2%

- 임금인상률의 적정성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과의 관계로 평가
-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(cost push inflation)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 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.
- 국민경제생산성에 따른 2006년 적정임금인상률은 6.2%

$$\begin{aligned}
 \text{적정임금인상률} &= \text{실질경제성장률(한국은행 5.0\%)} \\
 &+ \text{소비자물가상승률(한국은행 3.0\%)} \\
 &- \text{취업자증가율(한국노동연구원 1.8\%)} \\
 &= 6.2\%
 \end{aligned}$$

문의처 :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이시균 책임연구원

Tel : 782-0141(교환 330) E-mail : lsk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